

오늘의 기사판

한국기상학회 춘계 학술대회 오전 10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

행사 (27일)
▲한국기상학회 춘계 학술대회 = 28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개회식은 오전 10시 4층 컨벤션홀. 박순웅 서울대 교수·김승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단장의 초청 강연과 대기역학·대기물리·기후·환경 응용·기상 기술 등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
▲광주시 교통경제인단체협의회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세미나 = 오후 2시 상무리컨벤션센터 3층 대회의실.
▲담양하천습지 보전계획 용역 최종보고회 = 오후 3시 영산강유역환경청.
▲담양군 관광도우미 택시 발대식 = 오전 11시 담양군 문화회관 광장.
▲IT기반 서남권 중형조선산업 지역혁신센터 개소식 = 오후 3시30분 목포대 박물관. (28일)

▲광주전남경총 금요조찬 연수회 = 오전 7시 무등파크호텔. 조영탁 (주) 휴넷 대표이사가 '행복한 경영'이라는 주제로 기업경영 성공방정식 강연.
▲한국복지정보통신협회 광주·전남지부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 오전 11시 KT 광주정보통신센터 3층 대회의실.
▲이민원 교수 출판기념회 = 오후 6시30분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 이교수의 '지방이 블루오션이다'라는 책 출판 기념회.
▲이충무공 탄신 제 461주년 제전식 = 오전 10시 목포시 충무동 고하도. 이충무공 목포지구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 700명 참석 예정. 오전 8시30분 목포시 유달산. 이충무공 동상 참배.
▲오규철 9단 입신 기념 축하연 및 후원의 밤 = 오후 7시 상무리컨벤션 웨딩홀.
▲제 45회 전남도민체전 폐회식 = 오후 3시30분 보성군 공설운동장.

공연
▲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 27일(목)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빛의 노래 광주의 소리'라는 주제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한영애·김일구·한승석·염현주 및 무용팀 출연. 창과 관현악·춤 관현악·누구 없소·그렇지요 등 공연.
▲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 28일(금)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베토벤 교향곡 제 5번 '운명', C단조 작품 67 등 연주.
▲DUO Piano 정기연주회 = 28일(금)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이근영·오자형·서재욱·조지영·문마리아·류은선·최미선·오경민 등 출연.
▲야생화 전시회 = 28일부터 4일간. 한국국가사문학관 갤러리.
▲국제현대미술 확산전 = 6월

2일까지 보성군립 백민미술관. 중국 11명·일본 11명·한국 30명 등 52명의 작가들의 예술 전 분야에 걸친 작품 전시.061-853-0003
▲광주시립미술관 '즐거움 미술여행'전 = 5월28일까지 시립미술관. 인터랙티브 가상현실 아트·동화나라·미술나라 등 어린이 체험형 행사.
▲조선대학교미술관 소장전 = 5월5일까지 조선대 미술관. '만남 그리고 어울림'을 주제로 7·80년대 화가들의 작품과 조각, 서예 등 66점 전시.

역사속의 오늘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세상 떠남(B399)
▲인류 최초로 지구일주 항해한 스페인 항해가 마젤란 세상 떠남(1521)
▲서울 동대문 중건 완성(1869)
▲국회, 농지개혁안 가결(1949)
▲이승만 대통령 하야(1960)
▲세종로 이순신 장군 동상 동상 제막(1968)
▲제7대 대통령 선거, 박정희 후보 당선(1971)

뉴스퀴즈

9. 최근 일본 정부가 동해상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수로 측량 활동을 하겠다고 국제수로기구(IHO)에 통보하면서 한·일 간 해상 충돌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등 파문이 일었습니다. 특히 일본측이 제시한 수역에는 울릉도 인근 섬 이곳 해역까지 포함되면서 국민들의 주권 수호 의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섬은 어디일까요?
① 독도 ② 제주도
③ 백령도 ④ 강화도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엄앵란의 사랑과 결혼

16 기다림의 미학
은행원인 김모(31)씨는 같은 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이모(여·27)씨를 평소 흠모해왔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김씨는 어느 날, 퇴근하는 이씨의 뒤를 밟았다. 마침 이씨의 발길은 근처 대형서점으로 향했고, 서점 안에서 김씨는 우연히 가장하여 이씨에게 말을 붙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끝에 둘은 레스토랑으로 들어가 얘기를 나눴다. 그 날 이후 김씨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다. 김씨는 이씨도 자기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다고 판단. 더 이상 미룰 것 없이 본격적인 대시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그 날부터 김씨는 이씨에게 하루에 대여섯 건 씩 문자메시지를 날렸고, 퇴근 후에는 전화를 걸어 만나자는 제안을 거의 매일 하기 시작했다. 한 두 번 정도는 김씨의 제안에 응했던 이씨는 나중에는 이 관계 저 관계를 대가며 김씨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런 이씨의 태도를 보고도 김씨는 '옛말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랬어'라고 되뇌이며 집요하게 요구하는 자세를 보였다. 결국 김씨는 며칠 후 이씨로부터 '우리 없었던 일로 해요'라는 통보를 받았고, 그 뒤로 이씨는 김씨의 연락에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씨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군. 내 참, 이럴 거면 왜 처음에는 내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거야, 알미운 계집애!'라고 투덜대며 마침내 지쳐 포기하고 말았다.
사람에 접근하는 남녀의 태도는 다르다. 남녀 차이를 숙지한 상태

남자들이여 기다려라
'기분'인데, 이 기분이란 것이 멋진 곳에 가야지만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성질 급한 남자들이여! 기다릴 줄 아는 훈련을 평소 꾸준히 해두시라. 그래야 연애나 결혼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법이니깐.
http://www.daksclub.com
문의전화 : 1588-6665
(다크클럽(주) 대표컨설턴트)

일 가능성이 높는데, 그럴 때일수록 안급조절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고, 마인드 컨트롤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무턱대고 생각 없이, 아무런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좋아 하는 감정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를 조절하기가 매우 어렵다.
왜 여자는 무드에 약하다는 말을 흔히 하지 않겠는가! 무드라는 것은 꼭 어느 장소에 가야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상대의 언어나 몸짓을 통해서도 조성될 수 있다.
어떤 여자에게 작업을 들어가게 되면 간격을 두고 만나는 등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 것이다. 간격이 있어야 생 각해볼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야 무드에 젖어 들 수 있는 것이다.
무드(mood)의 사전적 의미는

바둑소식
중, 구리 우승기념 우표제작
생애 최초로 LG배 세계기왕전 타이틀을 거머쥔 중국 구리 7단의 우승 기념 우표가 제작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기협에 따르면 구리 7단의 고향인 중국 충칭(重慶)시에서 구리의 LG배 우승을 기념하는 우표와 편지봉투 각각 600매를 제작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구리 7단은 LG배 우승상금으로 2억 5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중국기협에서 지급하는 6만 위엔과 충칭시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을 행하게 된다.
구리 7단은 이 대회 결승 5번기에서 천야오에 5단을 3-2로 꺾고 우승을 차지, 자국 규정에 따라 9단으로 자동 승단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바둑소식
중, 구리 우승기념 우표제작
생애 최초로 LG배 세계기왕전 타이틀을 거머쥔 중국 구리 7단의 우승 기념 우표가 제작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기협에 따르면 구리 7단의 고향인 중국 충칭(重慶)시에서 구리의 LG배 우승을 기념하는 우표와 편지봉투 각각 600매를 제작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구리 7단은 LG배 우승상금으로 2억 5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중국기협에서 지급하는 6만 위엔과 충칭시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을 행하게 된다.
구리 7단은 이 대회 결승 5번기에서 천야오에 5단을 3-2로 꺾고 우승을 차지, 자국 규정에 따라 9단으로 자동 승단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바둑소식
중, 구리 우승기념 우표제작
생애 최초로 LG배 세계기왕전 타이틀을 거머쥔 중국 구리 7단의 우승 기념 우표가 제작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기협에 따르면 구리 7단의 고향인 중국 충칭(重慶)시에서 구리의 LG배 우승을 기념하는 우표와 편지봉투 각각 600매를 제작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구리 7단은 LG배 우승상금으로 2억 5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중국기협에서 지급하는 6만 위엔과 충칭시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을 행하게 된다.
구리 7단은 이 대회 결승 5번기에서 천야오에 5단을 3-2로 꺾고 우승을 차지, 자국 규정에 따라 9단으로 자동 승단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7일(음 3월 30일 丙戌)

Table with 2 columns: Day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corresponding horoscope text.

굿모닝 잉글리쉬 <634>
I can't help it
나도 어쩔 수 없어
A:I wonder if it's all right with him.
B:Why do you have to ask for his permission?
A:I can't help it. He's always been very bossy.
B:I guess you can rebel sometimes.
ask for = (~을 해달라고) 부탁하다.
ask for his permission = ask him for permission
bossy = 으스스대는, 보스인척 하는
all right = O.K
I can't help it. = It's not my fault.

오하이오 니혼고 <634>
ごめんなさい、'みどりのおばさん'!!
죄송합니다, 녹색 어머니!!
A:さあ、信〇(しんごう)が〇(あお)よ。みんな手をあげて渡(わた)りなさい。
B:はい。
A:ほらほら、君、〇〇道(おうだんぼどう)から はみ出(みだ)しちゃだめ。車(くるま)にひかれるわよ。
B:ごめんなさい、'みどりのおばさん'!!
A:자아, 신호가 파랑이야. 모두 손을 들고 건너가세요.
B:예-예.
A:이봐 이봐, 너, 횡단보도에서는 손을 넘어가면 안돼. 차에 치여.
B:죄송합니다. '녹색 어머니'!!
信〇(しんごう) : 신호
〇〇道(おうだんぼどう) : 횡단보도
はみ出(みだ)す : 어떤 선에서 나가 버리다, 비어져 나온다, 밀려나오다
ひかれる : (자동차 따위에) 치이다

니하오 쑹구위 <382>
艾滋病
에이즈(AIDS)
A:艾滋病令很多人感到恐惧。
B:是啊，但是只要我们注意预防，是可以避免的。
C:确实已经证明，它传播不会感染艾滋病。
D:确实，只要我们注意预防，是可以避免的。
E:确实，只要我们注意预防，是可以避免的。
F:确实，只要我们注意预防，是可以避免的。
G:确实，只要我们注意预防，是可以避免的。
H:确实，只要我们注意预防，是可以避免的。
I:确实，只要我们注意预防，是可以避免的。
J:确实，只要我们注意预防，是可以避免的。
K:确实，只要我们注意预防，是可以避免的。
L:确实，只要我们注意预防，是可以避免的。
M:确实，只要我们注意预防，是可以避免的。
N:确实，只要我们注意预防，是可以避免的。
O:确实，只要我们注意预防，是可以避免的。
P:确实，只要我们注意预防，是可以避免的。
Q:确实，只要我们注意预防，是可以避免的。
R:确实，只要我们注意预防，是可以避免的。
S:确实，只要我们注意预防，是可以避免的。
T:确实，只要我们注意预防，是可以避免的。
U:确实，只要我们注意预防，是可以避免的。
V:确实，只要我们注意预防，是可以避免的。
W:确实，只要我们注意预防，是可以避免的。
X:确实，只要我们注意预防，是可以避免的。
Y:确实，只要我们注意预防，是可以避免的。
Z:确实，只要我们注意预防，是可以避免的。

한자 이야기 <952>
電磁波(전자파)
번개 전, 자석 자, 물결 파
전자파(電磁波)는 전자(電子)의 움직임이 물결이 움직이는 것처럼 전파되는 현상이다.
전(電)은 우(雨)+신(申 : 번개)으로, 번개가 치는 모습이다.
자(磁)는 석(石)+자(茲 : 이어져 붙어나다)로, 물건을 끌어당겨 붙이는 광물이다. 파(波)는 수(水)+피(皮 : 흔들리다)로, 흔들리는 물결을 나타낸다.
현대인은 전자파의 홍수(洪水) 속에 잠겨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 때나 끄는 컴퓨터를 비롯하여, 수많은 가전제품(家電製品)의 전자파가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심지어 잠잘 때도 전자파요나 전기장판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우리 몸은 신음하고 있다.
전자파의 대표적 유해성(有害性)으로는 암(癌)의 발병률을 증가 시키는 하면, 생식기능(生殖機能)을 감소시키고, 임신부가 유산(流産)을 하거나 기형아(畸形兒)를 출산하는 일 등이 알려져 있다.
편안하고 쉬운 것을 추구하는 대신, 불편함의 미덕을 감수(甘受)한다면 전자파의 공포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